

통권 제 189호

강남. 라 00943

2563
2019

07

불교 이야기
계학이란 무엇인가?



계율 이야기
구미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삼가하라



결망에 담긴 이야기
음모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마음

- 1)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이익과 안락과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어서 모든 번뇌煩惱를 끊고, 능히 악惡한데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가 길이 지혜있는 참스승이 되어서 원만청정圓滿淸淨한 과보를 속히 증득하리라.
- 2) 불법佛法은 체가 되고 세간법世間法은 그림자라. 마음이 착해지면 현세가 곧 극락이요, 본체本體가 곧게 되면 그림자도 곧아진다. 마음이 악해지면 현세가 곧 지옥이다.
- 3) 정토淨土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이니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 불토佛土가 청정할 것이다. 세상을 구하고 다스리는 길은 바른 마음이 근본이 된다.
- 4) 마음이 흩어지면 귀신鬼神이 되고 마음이 모아지면 정신精神이 된다. 귀신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의 근본이 나에게 있으니 다른 곳에 빌지 말고 자성불에 참회하고 서원하여 보라. 그 복이 백천만배百千萬倍가 되어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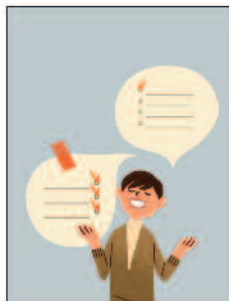
다르마 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충지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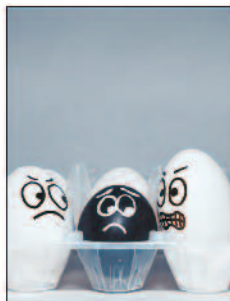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32

나 전달법

묘원화 전수



십선성취 44

편견

덕현 전수



함께 만든 100년 48

영화와 음악과 풍류를
즐기던 모던보이
이봉창의사...
자성 전수

2563
2019

07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2 게을이야기

20 살다보면

26 향유

30 산책

32 아름다운 세상

36 마음의 등불

40 생활 속 식물이야기

44 십선성취

48 함께 만든 100년

52 씨앗한 알

56 디딤돌

60 거꾸로 보기

64 독자기고 1

66 차향기

70 독자기고 2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 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계학이란 무엇인가? 화령 정사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이정숙

꾸미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삼가하라 법경 정사

명의名醫 이옥경

엄마랑 말이 안 통해 강동현

그 기다림 김대곤

나 전달법 묘원화 전수

대중은 우매하지 않다 홍여아

추억없이 어떻게 살아랴로아-Wax plant 이태용

편견偏見 덕현 전수

영화와 음악과 풍류를 즐기던 모던보이 이봉창의사... 자성 전수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 자리 법상 스님

언어의 온도 지현 전수

이불 공주는 누가 깨울까잠자는 숲 속의 공주 박현희

선우예권 피아노 공연을 보고 여순애

여름철 녹차를 이용한 음료와 간식 김정애

고마운 충지산악회! 김정숙

음모 법일 정사

은혜 김재동

염원念願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노력

어떤 사람이 이웃마을의
아름다운 3층 집에 올라가 보고는
목수를 불러 이 집보다 더 좋은
3층 집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목수는 땅을 고르고 기둥을 세우고
벽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목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몇 층 집을 짓느냐?”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3층 집을 짓기 위해 1층을 짓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1층과 2층은 필요 없으니 3층만 지어라.”

세상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 가꾸지 않고,
땀을 흘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빨리 얻고 싶어합니다.

- 백유경(百喻經) -



계학이란 무엇인가?

화령 정사
불교총지중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주교



수계와 파계(1)

— 계를 받으면 계체가 생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을 지계(持戒) 혹은 수계(守戒)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를 어기는 것을 파계(破戒) 혹은 범계(犯戒)라고 합니다. 계율은 물론 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계를 주는 수계(授戒)와 계를 받아 지키는 수계(受戒)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계(受戒)가 없이는 불교의 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계를 주는 것도 중요하

지만 그것과 더불어 계를 지키는 수계(受戒)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계가 불교의 계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계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계를 지키겠다는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계체(戒體)'라고 합니다.

수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체가 형성되면 우리에게 계를 지키고 악을 방지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학생들이 신학기가 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이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책상앞에 써서 붙여 놓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계라는 것을 단순히 금지조항을 적어 놓은 것이나 승단의 규율에 대해서만 적어 놓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는 지악행선(止惡行善)에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악행을 멈추고 선한 행위를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가 된 이상은 '계율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계식을 통해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체가 형성되면 점차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체라는 것은 선의 무표업(無表業)입니다. 무표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행위나 언어의 표업이 마음에 남게 되는

보이지 않는 업력입니다. 무표업이 어떤 연을 만나서 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언어나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표업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언행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수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체가 형성되면 선의 무표업이 자라나게 되어 자연히 악한 것은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체가 유지되도록 거듭해서 계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계식을 통하여 계를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하면 알게 모르게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것이 계체입니다. 예를 들면, 계를 받으면서 불음주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오랜만에 보는 고향 친구가 찾아와서 같이 딱 한잔만 하자고 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 술을 마시기는 마십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이 좀 됩니다. ‘내가 계를 받으면서 부처님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가급적이면 술 마실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 계체라는 것입니다.

계체는 우리에게 선의 무표업을 형성하게 해서 악의 무표업을 누르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선업만을 행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계체는 우리에게 선의 무표업을 형성하여 후천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방지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수계에 의해서 계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계에 의하여 계체를 얻게 되는 것을 계체발득戒體發得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수계라는 것은 단순한 의례절차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대단히 중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계에 의해서 계체가 생기는 것은 구족계를 받는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반 재가자들도 수계식을 통하여 오계 등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계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재가신도도 오계를 받으면 공덕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계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가까운 절에 나가서서 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럴 인연이 되지 않는 분은 스스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앞

에서 말씀드린 삼취정계를 지킬 것을 맹세해도 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즉,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여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삼취정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의 항목이 실은 이 세 가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삼취정계만 잘 지켜도 보살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삼취정계로써 모든 계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계를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어기면 어찌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계를 받지 않은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를 받으면 계체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 계를 어겼더라도 계속해서 거듭 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계를 어기게 되면 계체의 힘이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거듭해서 계를 받으면 계체의 힘이 회복됩니다. 계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파계를 해도 계체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남아서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처럼 계체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라도 여러 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자가 되려면 삼귀의계와 오계를 지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를 받지 못한 분들은 하루 속히 계를 받는 것이 불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계를 받으신 분들이라도 그동안 계체가 약해졌을지도 모르니 계를 또 받아도 무방합니다. 🙏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이정숙

같은 말도 듣기 싫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어투가 통명스럽거나 거친 용어를 사용하거나 목소리가 유난히 공격적일 때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나 말투가 좋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된다.

당신이 좋은 말도 통명스러운 말투로 하면 듣는 사람은 “나한테 화난 것일까”라고 오해할 수 있다. 당신의 거친 말투는 당신의 의도와 다르게 “나를 겁주려는 것일까”라는 메시지로 변하기 때문이다.

말이란 내용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도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당신이 속마음과 달리 통명스러운 말투로 말한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것이다.

남편인 당신이 결혼 전과 달리 결혼 후 통명스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아내는 당신의 애정이 식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상사인 당신이 부하직원을 아끼면서도 욕을 섞어 거칠게 말하면 부하직원은 당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장성한 자녀인 당신이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큰일 나고 싶으세요.”라고 화난 목소리로 말하면, 부모님은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염려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 간섭이나 받는다.”라는 슬픔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칭찬할 때와 꾸짖을 때, 걱정할 때와 간섭할 때 등 경우에 따라 말투를 달리해야 한다.

말투란 말을 담는 그릇이다. 물을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세숫물로 보이기도 하고 먹는 물로 보이기도 하듯 말투는 그 나름대로 독립된 의미를 지닌다. ♫

이정숙님 '유쾌한 대화법'에서



꾸미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삼가하라

법경 정사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주교



정정한계율 50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

꾸미는 말을 기어綺語라고 한다.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은 대승불교에서는 십선계+善戒에 해당되지만 초기불교에서는 바일제에 해당된다. 꾸며서 말하지 말라는 것을 신구기계身口綺戒라고 한다. 몸으로 꾸미는 행동을 하고, 입으로 꾸미는 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다. 율장마다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유부율』에서는 위녀언교학처違女言教學處라 하고, 『사분율행사조』에서는 신구기계身口綺戒라 하고 있다.

위녀언교학처違女言教學處라고 하는 명칭은 싯달타 태자의 마부였던 찬타카가 죄를 범하고 비구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자신은 붓다께서 성을 떠나 출가를 하실 적에 마부였던 점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자만심에 빠져 다른 비구를 경멸하고 질문을 받아도 궤변을 늘어놓거나 침묵하여 대답을 하지 않아서 승가를 애 먹었다고 하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찬타카는 비구 대중들에게 비난받을 때, 오히려 대중들을 향해 항변하며 말하기를 ‘누가 죄인가, 무엇이 죄가 된다 말인가, 무슨 연유로 죄라 하는가, 그대들은 누구를 보고 나무라는가’라는 식으로 반론하고 때에 따라서는 침묵하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궤변을 늘어놓거나 적반하장賊反南狄으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급기야 막말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고 사회는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가히 막말의 향연^{향연}이요 대잔치다. 그런데 여기서 궤변을 늘어놓거나 침묵하는 것이 바일제의 조건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궤변의 여부를 판정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궤변인지의 여부는 한 두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승가를 소집하여 승가 앞에서 그 비구의 죄를 힐문하고, 그 비구의 대답이 궤변임이 분명해졌을 경우, ‘이 비구는 다른 말을 늘어놓기 때문에 바일제가 된다’고 대중들에게 드러내어 말하고, 대중이 만장일치로 그러하다고 동의하였을 때 바일제가 결정된다. 이를 백이갈마^{白鷲野}라고 한다. 대중에게 죄를 묻고 대중들이 답하는 것이 백이갈마다. 참으로 민주적인 징계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불교종단들도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몇몇 사람이 모여 징계를 논의한다면 잘못된 판정을 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기계^{身口語意}의 계율이 제정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코삼비 코아살라 동산에 계실 때 찬타카 존자가 죄를 범하자 비구들이 물었다. “그대는 죄를 범한 것을 아시오?” 찬타카 비

구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면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무슨 이치로 말하는 것인가, 나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대들은 왜 나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고 항변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처님은 대중의 의견을 들으신 후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만약 비구 비구니가 망령스럽게 다른 말을 하여 대중을 괴롭게 했다면 바일제가 된다.”」

죄 지은 사람을 다룰 때, 죄의 여부를 대중 앞에서 논의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만천하에 죄를 낱알이 드러내어 공표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 의견으로써 분명하게 단죄^{斷罪}하고 있다는 점이다. 승가 전체가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임 보는 스님을 공연히 비방하지 말라

말과 관련된 계율로서 앞의 경우처럼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바일제가 되지만, 스님을 공연히 비방하는 것도 바일제가 된다. 특히 절집에서 소임을 보는 스님을 함부로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승가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승지사(僧知事)라고 하였는데, 승지사는 승가의 방을 배정하고 재가자들의 식사 대접이 있으면 그 집에 순서대로 비구를 보내는 일을 담당했다.

공평하게 운영해야 하겠지만 일이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가운데 오해도 일어날 수 있는 법이다. 한편으로는 승지사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거나 승지사의 일처리에 대해 비난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소임을 보는 비구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고, 그 스님을 욕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이 계를 협대승지사계(應大僧知事戒)라고 한다. 계를 제정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로산에 계실 때 푸트라 존자가 승가의 소임을 맡아 방석과 대중공양을 분담하였다.

그런데 불평 많은 비구 한 명이 푸트라와 대면한 적도 없으면서도 푸트라에 대해 비방과 험담을 늘어놓았다.

“푸트라는 애욕, 성냄, 두려움, 어리석음이 가득하다.” 이에 대중 비구들이 그렇지 않다고 했으나 그 비구는 항상 보는 사람마다 불평과 비방, 험담을 늘어놓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가 공연히 다른 비구를 비방하면 바일제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구는 험담과 비방을 멈추지 않으면서 “나는 비방,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제2차로 다시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가 공연히 다른 비구를 꾸짖으면 바일제가 된다.” 비방과 험담은 꾸짖음과 다르다. 비방과 험담은 얼굴을 대하지 않고 등지고 하는 것이고, 꾸짖음은 얼굴을 대하여 직접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말하느냐 앞에서 말하느냐의 차이이다. 그러나 그 행함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결과 또한 다르다. 비방과 험담은 독이지만 꾸짖음과 나무람은 오히려 약이다.

뒤에서 말하지 말자. 뒤에서 말하는 것은 불평불만이고 비방과 험담이다. 굳이 말하고 싶다면 앞에서 말하자.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하다. 🙏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이십 일 가까이 심한 감기에 시달리는 중이다. 처음에는 재채기와 콧물이 나더니 목이 아프고 미열에 두통, 기침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사나흘 되던 날부터 대엿새 동안은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러다가 영영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방정맞은 생각에 은근히 겁이 나기도 했었다.

평소 건강한 편이고, 워낙에 가볍게 시작됐던 증상이라 민간요법으로 감기를 이겨보려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도라지, 생강, 모과, 대파 뿌리, 꿀꺽질, 대추 등을 넣어 끓인 물을 배부를 정도로 마시고 또 마셨건만 어찌 된 셈인지 증세는 점점 악화.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처방받은 약도 열흘이 넘게 먹었지만 정말이지 이상하다 못해 신기할 정도로 효험이 없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기침이었다. 기침이 한 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계속돼 누굴 만나는 것도, 잠자고 먹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다. X-레이 상으로 봐도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기침은 점점 심해졌다.

양방이 안 되니 한방으로 가 볼 수밖에. 그러나 역시다. 기력을 돋우고 폐와 기관지를 보한다는 처방이 무색하다. 한약을 먹으니 많이 나은 것 같다는 자기암시를 계속했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침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 그저 힘들고 괴로울 따름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힘들고 괴로운 게 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들 내외의 무심함이 목구멍의 가시처럼 자꾸 마음을 찌르는 것이다. 이십 일이 다 되도록 골골거리는 어미를 생각이나 하는지 마는지, 목소리가 안 나와 전화 통화조차도 못 하는 어미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병문안이 다 무언가. 아들도 며느리도 소식이 없다. 서운하다 못해 쾌שמ해지는 이 마음을 어찌할 것인가.

농담 반 진담 반 따져 보자면 이번 감기는 돌도 안 된 손자 녀석에게 옮은 것일 수도 있다. 결막염에 중이염 증상까지 겹칠 정도로 심한 감기를 앓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된 녀석을 1주일 봐주는 동안, 내게도 똑같은 증상이 생겼다. 닦하고 싶은 마음은 단 하나도 없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지 몰라도, 그 어린 녀석이 감기를 옮길 수 있다는 게 경이로워 웃음까지 다 났었다.

엊그제, 감기는 나았으나 결막염이 완치되지 않아 종합병원에 예약했다던 손자 녀석의 결과가 궁금해서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종합병원을 거쳐 동네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까지 온종일 종걸음을 쳤다며 애면글면, 구구절절...한, 며느리의 답에는 아직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양·한방 백약이 무효인 시어미에 대한 안부 한 마디가 없다.

참으로 서운했다. 몸이 괴로울수록 더욱더 또렷해지는 쾌שמ한 생각에 마음이 더 어지럽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는 공치사와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는 자괴감과 딱 너희들이 하는 만큼만 나도..., 하는 다짐을 곱씹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의원을 찾았다.

주룩주룩 비가 쏟아지던 첫날과 달리 환자가 많았다. 차례를 기다리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로,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라는 뜻풀이도 달려 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 기와 혈의 순환에 장애가 있으면 몸에 병이 생기고, 기와 혈의 순환이 원활하면 건강하다는 이 말이 어찌 몸에만 해당하겠는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도 그럴 수밖에 없으려니.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그 한 구절로 인해, 답답하던 가슴이 뽕 풀리고 하해(河海)와 같은 마음
이 불끈 치솟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에게, 또는 아들 내외에게, 아
니면 나와 아들 내외와의 관계 속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원
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는 말이다. 지극히 일상적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좋을 일에 골머
리를 싸매고 있거나,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고정관념과 선입견으
로 소통의 창구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잘하면 고마운 일이고, 서운하게 하더라도 내
영역 밖의 일이라고 털어 버려야 한다. 아들 내외의 무심함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편적인 거리로 여기는 것이 옳다. 누구나 다 그들의 정
서로, 그들의 문화를 산다. 선부른 판단은 서로를 해칠 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역지사지(易地思之), 마음의 기와 혈을 자유롭게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상대가 못마땅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마음에 들지 않는 바로 그 사
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을 이해한다? 스스로 엄격해져야 하고, 공감
하려는 진심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따라야 할 텐데, 그게 어렵다. 우아
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지금의 나도 마찬가지다.

타인을 배려하고 먼저 베풀라는 자리이타(自利利他)가 어찌 불가의 가르
침만이라고 하겠는가. 자신에게도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로울 뿐만 아
니라 나아가 모든 중생의 구제를 위해 공덕을 닦는 이타(利他)의 경지까
지야 욕심이라 하더라도, 노력하고 정진하여 얻은 복락과 지혜로 자
신을 이롭게 하는 자리(自利)의 근처에는 이르러야 할 텐데 불통(不通)의 이
마음, 흉내조차 어렵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역지사지..., 자리이타...! 쿵쿵쿵쿵 기침을
하며 스스로 주문을 걸어본다. 아직은 멀기만 한 길 위에서, 마음속 명
의가 가만가만 내 등을 두드려 주는 듯하다. 🙏



엄마랑 말이 안 통해

강동현
관성사 교도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요즘 딸이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얼마 전까지는 나를 존경한다더니 지금은 세상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 나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나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교육 받고 조심조심 살아 온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좀 막막하다.

나는 사춘기도 없이 조신하게 자라온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나는 사춘기를 어른이 돼서 겪었던 것 같다. 혼자서 겪는 사춘기였던 것 같은데 엄마한테 여쭙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너 같은 딸을 낳아 뵈라.”는 저주였을, 혹은 하소연이었을 말씀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요즘 나와 내 딸 사이가 간당간당하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딸과 함께 걷기를 하고 있다. 비오는 날이라서 쉬고, 피곤해서 쉬고, 날마다 따라 간다는 처음의 약속은 깨졌지만 그래도 며칠에 한 번은 따라 나가고 있다. 6시 30분에 온 가족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잠수교를 걸어가서 남편은 출근을 하고 우리는 다시 걸어서 집으로 오면 40분쯤 걸리는데 그 길을 두박두박 걸으면서 수다를 떨었다. 속에 든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아이를 잘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어리석은 엄마였다.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한 것이었는데, 나는 엄마 노릇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다. 아이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주



고 아이 말을 잘 들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와 딸이 생각하는 좋은 엄마는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당황을 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을 잘 모르겠다던 내 엄마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정말 나는 이 녀석을 잘 모르겠다. 그 전까지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지금은 길을 잃었다. 사춘기라서, 용기가 나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그 말에 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정말 나는 어떤 부모인지 생각하고 뜬 구름 잡듯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딸과는 상관없이 내가 부러워하는 엄마, 내가 되고 싶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마음에서 꺼내 말을 하는 딸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아 마음이 잔했다. 요즘에 와서 딸이 자주 운다.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자기 말이 잘 전달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운다. 웃으면서 운다.

갱년기를 겪는 나도 우는 녀석을 보며 같이 울다가 같이 웃는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자주자주 우리 엄마한테 사과를 한다. 나는 자주자주 딸에게 사과를 한다. 세상에 어떤 사춘

기와 다르고 어떤 갱년기랑 다르다. 책을 찾아보고 상담을 받아 봐도 막막하다. 이번 49일 동안에는 전수님이 해보자고 하시는 데로 불공을 하고 있다. 남편 따라서 운동을 갔다 온 다음에 불공을 한다.

그 전에는 시간 날 때만 들쭉날쭉 했는데 시간을 맞춰서 불공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전수님이 조언하시는 데로 차근차근 잘 따라 가고 있다.

딸이 나를 순종하게 하도록 만든 것 같다. 내가 하는 불공이 나한테 제일 잘 맞다 생각했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수님이 시키는 데로 하고 있다. 고비를 잘 넘길 때마다 사실 전수님한테 가서 밥을 산다. 가끔은 “불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낮부끄러운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동참을 읽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전수님은 평소에 내 불공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안 하시는데 하도 내가 속을 끓이고 낙심하니 조언을 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실 엄청 든든하다. 법문이 온다. 그래도 이제는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법문이 오든 안 오든 감사하다. 불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들도 계시고, 법문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근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불공할 수 있게 끊임없이 이벤트를 주는 딸도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니 온갖 칭얼거림이 그냥 대견하다. 자기를 잘 모른다고 할 때마다, 긍정한다.



맞으니까 정말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다 알아야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모르면 어쩌냐 싶어진다. 딸에게 맞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말해 준다.

더불어 담대해진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자라고 있고 달마다 새롭게 자라고 있는 것 같다. 날마다 고난이지만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마따나 울다가 웃고 웃다가 엉엉 운다. 말은 안 통하는 엄마지만 통할 수도 없는 엄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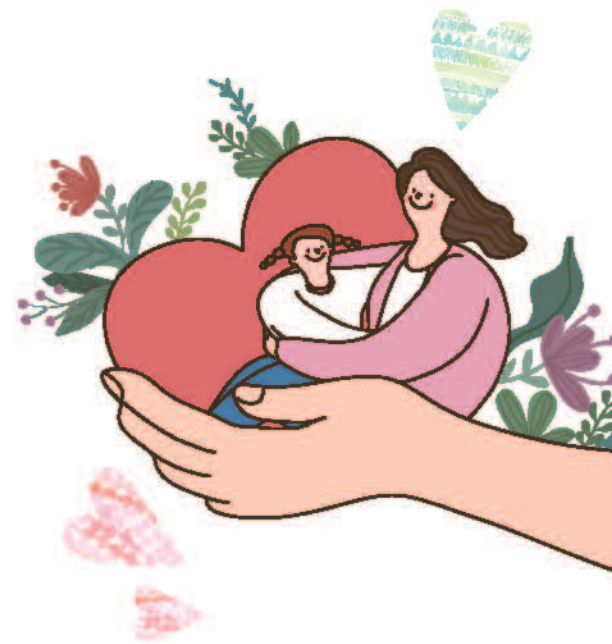
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불공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 사실 불공만 할 수밖에 없다. 뭘 말이라도 하면 다른 오해가 쌓이고 서운하게 생각하니 불공밖에 할 게 없다. 그래도 불공하면서 나도 바뀌고 있다. 애는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존재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인정하기로 했다. 알 수가 없는 존재, 그 자체로 남겨두고 나는 오늘도 그냥 불공하고 있다.

잔소리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불공할 때는 일단 입은 다물고 말은 안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 딸이 아침에 함께 걷다가 돌아오는 길에 속에 있는 말을 더 많이 털어 놓고 있다. 부탁인지 통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

어떤 감정도 개입하지 않으리라. 불공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생각

하면서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을 한다. 든든하게 네 곁에 있을 터이니 마음껏 탐색하고 고민하라고 말이다. 늘 힘이 되어 주었던 내 엄마처럼 나도 불공의 힘으로 든든히 곁에 있겠다고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딸이 씨익 웃었다. “뭘지? 못 믿겠다는 얼굴인데?” 하며 장난을 쳐도 화를 내지 않는다. 불공 덕이다. ♣



햇살 섞어 반짝임을
쉬임없이 토해내는 반복된 포말
먼 기다림의 하루를
바다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알것이다.

꽃 같이 죽었다가 피었다가
환호하며 빠르게 반복되는
수평선의 아픈 사랑을...
이루어질 수 없는 아픔은
사라짐도 아득하다.

혼자 흔들리는 파도에
길게 누운 가로등
그 긴 시간들이 어둠과 함께
춤추기 시작할 때
나는 너를 열망하며 기다렸었지
팽팽한 긴장감으로 온몸을
휘감으며 발자욱 소리를
기대했었지

떠나간 날 들이 하나의 점 처럼
하늘에 올라 푸른 별이 되고서야

이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서러운 시간이란 것을 바다는
애써 감춘다.

놓아주어야 하고
그래야만 다 품을 수 있기에
기다리는 사랑에서
서로 마주해야 하는 사랑이기에

바다는 햇살과 어둠을
번갈아 천년씩 기다리네.

나 전달법

묘원화 전수
벽통사

‘나 전달법’은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행동(관찰)이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관찰한다. 나한테 유익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대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듯이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남의 일을 보듯이 한 발 떨어져 그저 관조한다. 사실 1단계부터 어렵다. 우리는 업에 의해 이미 색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상대의 언행을 본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부터 불교인으로서의 수행이 필수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자 노력해 보자. 과거에 있었던 일은 내려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자. 이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대화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해석이나 추측은 금물이다. 가능한 보고, 듣고, 느낀 것만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자.

예) 네가 나를 무시했을 때 (×)

네가 나를 무시한 것을 보고 (×)

네가 문을 꽝 소리나게 닫았을 때 (○)

네가 문을 꽝 소리나게 닫는 것을 보고 (○)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전체로 여겨버리게 하는 ‘항상’, ‘늘’, ‘~할 때마다’와 같은 표현은 피하자.

예) 네가 만날 때마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 (×)

네가 오늘 약속 시간에 늦어서 (○)

너는 아침에 항상 못 일어나 (×)

너는 일주일 동안 8시에 못 일어나 (○)



2단계는 나의 느낌이다.

그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이 느낀 것을 알아차림하고 그대로 표현한다. 마음이 느끼는 감정과 몸이 느끼는 감각 중 어떤 것도 좋다. 느낌을 그대로 적어보자. 처음에는 상투적이고 제한된 표현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점 다양한 느낌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도 늘어나면서 삶이 풍요로워진다.

또 다른 기준으로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으로 나눌 수 있다. 좋은 느낌만 표현하고, 나쁜 감정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 좋은 느낌은 나의 바람이 충족되었다는 신호이며, 나쁜 느낌을 통해 진정한 나의 욕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뇌를 없애는 수행은 없다. 오직 지혜를 기르는 수행만이 있을 뿐이다. 나쁜 느낌은 번뇌이기도 하지만 법의 문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이므로 수행자는 모든 느낌을 사실 그대로 알아차리고, 고유의 성질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힘써야 한다.

3단계는 나의 바람(욕구)이다.

2단계에서 알아차린 자신의 느낌들이 내면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지 찾아보자. 이때 욕구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만 알자. 선명하다면 선명하다고, 흐리다면 흐리다고 알면 된다. 많이,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은 탐심과 치심으로 물든 마음이므로 참된 욕구를 찾기가 힘들다.

욕심을 욕심이라고 알고, 치심을 치심이라고 알고,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하자. 수행은 바라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 나아간다.

4단계는 부탁이다.

3단계 욕구를 정확하게 찾을수록 구체적으로 부탁할 수 있게 되고, 상대가 나의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 선명해지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지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쉽고, 나도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진다. 관계가 조화롭고 화합이 당연하게 성사된다. 이 얼마나 큰功德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부탁을 했다면 설사 거절당하더라도 서운함이 없거나 적다. 만약 서운함과 상실감이 크다면 내가 상대에게 나의 방법이나 가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생각들에 대한 집착의 크기만큼 고통스럽다. 강요는 상대

와 나 모두를 괴롭힌다. 이렇게 불편한 느낌들을 알아차리면 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그렇게 나의 입장을 찾아내어 물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알기만 하는 수행을 통해 입장을 녹여 나간다.

5단계는 감사이다.

욕계 세상에서 욕구는 끝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욕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바세계에는 없다. 그럼 아직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 우리 중생들은 고통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 지옥, 아귀, 수라, 축생의 세계이다. 다행히 인간계에는 지족이라는 개념이 있다. 4단계 부탁을 상대가 들어주면 꼭 감사의 표현을 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어떤 바람이 충족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표현하다보면 감사 인사를 들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행복해진다.

그러니 상대를 위해서가 아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감사가 되는 것이다. 설령 상대가 부탁을 거절하더라도 감사꺼리는 충분하다. 내가 상심하는 정도를 보아 부탁을 했는지, 강요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상심함의 내용이나 정도로 나의 욕구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지는가. 이쯤 되면 정어 수행은 단순히 말을 잘 하는 기술이 아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진정한 수행 방법이다. 🙏

대중은 우매하지 않다

홍여하(洪汝河)
1620~1674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愚而神者 民也
莫深喻於利害之所在也

우이신자 민야
막심유어이해지소재야

—
어리석으면서도神通한
이들이 백성이니,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목재집(木齋集)』 5권 「성지설(城池說)」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는 재난과 참사 속에 시름하고 있다.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위로하기조차 힘든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슬픔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 혹은 공동체의 시스템이 참사를 막아내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국가와 사회에 회의적인 시선

을 보내며 나라를 떠나기까지 한다. 위의 글은 조선 후기의 문신 홍여하(洪汝河, 1620~1674)가 지은 「성지설(城池說)」의 일부이다. 작자는 성^ㅁ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 정치의 방법을 논하였다. 성은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한다.

위정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성에 들어가 살 것을 강요하였으나 백성들은 성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았다. 성은 성벽만 있을 뿐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차라리 사방으로 달아나 산과 들을 떠돌아다니며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였다.

백성들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잘 안다. 백성들이 성을 떠난 이유는 성 밖을 떠도는 삶이 성에 거주하는 삶보다는 안전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들을 총칼로 위협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성에 거주하는 삶을 이롭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성이 안전을 보장하는 제 기능을 회복한다면 백성들은 성에 거주하는 삶을 이롭게 생각하여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21세기에 성^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현대 국가의 여러 제도가 그 기능을 대신할 뿐이다. 그러나 과거에 성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국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며 국가에 머무는 일이 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제공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국가, 공동체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에는 존속되지 못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이승철 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추억없이 어떻게 살아 호야-Wax plant

이태용
원예 교육가



🌸 세월은 흘렀지만 그래도!

손이 잘 닿지 않는 집 안 한구석의 책장에는 수백 장의 레코드판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꽂혀 있다. 학생시절 용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가져 간 것들이다. 그 가운데 한 장을 꺼내 봤다. 조심스레 까만 레코드판을 꺼내자 특유의 냄새와 함께 그 시절의 추억도 따라온다.

지금은 비록 턴테이블이 없어 들을 수 없지만, 레코드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느새 조그맣게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레코드판을 무대에서 밀어낸 CD마저 찬밥 신세가 된 지금이지만, 레코드판은 여전히 빙글빙글 돌면서 잊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낸다. 그 속에서는 인사동 찻집에서 마시던 모과차 향기도 흘러나오고, 막걸리와 함께 먹던 고등어구이의 고소한 냄새도 흘러나온다. 이렇게 곱씹을 추억이 남아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 정 붙이고 사는 곳이 고향

거실의 한구석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 호야는 심심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제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아주 멋진 곳이지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제 친구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친구들은 울창하게 덩굴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때때로 덩굴이 아주 길게 늘어지면 개구쟁이 아이들이 매달려서 놀아요. 마치 타잔처럼 말이죠.”

호야가 입을 열 때마다 나는 호야의 잎사귀에 물을 적서 준다. 건조한 실내에 있는 식물들은 이렇게 잎에 물을 뿌려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너도 친구들이랑 놀 때가 있었겠구나.” “그럼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는 그곳에서 뿌리를 땅속에 넣지 않고 밖에 내놓고 살았어요. 뿌리를 바위나 나무에 찰싹 붙이고 공기 중의 물을 빨아 먹었죠. 나중에 들어 보니 사람들은 그걸 ‘공기뿌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는 네 몸에서 공기뿌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그야 당연하죠. 지금은 공기뿌리가 필요 없으니까요.”

화분 속에 살면 지금처럼 흙 속에 있는 뿌리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저씨가 알아서 물을 잘 주시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호야는 내색을 안 하지만 사실 나는 호야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미안하다. 멋대로 데려와 모양을 바꿔 놓은 게 바로 나이니깐. 호야는 고향의 정치며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아니요. 저는 지금 생활도 아주 좋아요. 저를 사랑해 주는 아저씨도 있고, 저와 평생을 함께할 화분도 있잖아요. 저에게는 여기도 고향이에요.”

☆ 고향의 추억, 추억의 흔적

여러분에게는 고향은 어떤 의미인가요? 국어사전이 말하는 고향의 정의는 첫 번째, 태어나서 자란 곳, 두 번째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사전의 첫 번째 정의로 하자면 나의 고향은 서울이다. 그런데 웬지 ‘서울’과 ‘고향’이라는 단어는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다.

서울은 그냥 삶의 터전일 뿐이고, 고향은 웬지 어느 먼 시골이어야만 할 것 같다. 서울에서 태어나 50여 년 가까이 살아왔으면 이제 고향처럼 느껴질 법도 한데, 왜 아직도 서울이 낯설기만 할까? 그건 아마 서울에는 추억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건물이 몇 십 년만 지나도 낡았다며 부수고 금세 새로 짓는다. 그러면서 옛 건물에 담겨 있던 추억의 시간까지 함께 없애 버린다.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 없이 모든 게 변해 버린 ‘현

재’라는 공간만 남아 있다. 오래 되고 낡았지만 기품 있어 보이는 곳,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 서울에서 그런 곳은 갈수록 찾기 힘들어진다. 숨어도 사람들이 귀신같이 찾아내니깐. 하지만 모조리 잊히고 사라지기에는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다.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들도 너무 많다. 그리고 보니 호야 또한 자신의 고향을 이야기할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걱정했음지도 모르겠다.

‘내 고향도 서울처럼 변해 버렸으면 어찌지? 내 친구들이 살던 곳이 모두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이런 걱정을 했을 호야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물을 뿌려 주는 일뿐이다. 호야의 고향이 사라지지 않고, 호야 또한 고향의 추억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





편견(偏見)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라고 합니다. 편견은 자신의 한 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마음에 색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편견이란 단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넓은지, 웅졸한지,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것만 보려 하고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은근히 배척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 편, 반대편, 내 것, 남의 것,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가진 편견, 즉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생활을 해나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것이 머리에 남아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머리카 가슴에 새겨진 것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도 않거니와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소문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겐 안 좋아도 다른 사람에겐 좋은 사람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나쁘게 얘기해선 안 됩니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견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절대 편견이 없다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확한 사실일까요.

편견은 선입견과 함께 생기며 자신의 고정된 틀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편견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편견은 또 다른 편견을 가져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둘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점만 보면 편견에 빠지고 장점만 보면 그릇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을 동시에 보더라도 단점 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여유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상대방에 대한 장점을 보게 된다면 그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을 찾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넓혀서 제대로 된 안경을 쓴다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화와 음악과 풍류를 즐기던 모던보이 이봉창의사...

자성 전수
법성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가 갈수록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을 당시 일본에서 상해로 김구 선생님을 찾아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조선말이 어눌하고 일본식 옷을 입고 일본어는 능숙하고 술만 마시면 일본 노래를 부르며 풍류를 즐기는 이 수상한 청년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며 김구 선생님께 간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어린시절을 보낸 이봉창의 장래 희망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이 되고자 일본식 교육을 받고 제과점, 운수회사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조선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무시와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일왕 즉위식 구경 중에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긴급 체포되어 풀려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봉창 의사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인이 될 수 없구나... 그럼 조선인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래, 잃어버린 나라부터 찾자!!!’

그때의 깨달음이 일본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던 젊은이를 독립운동가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엔 김구 선생님도 일제의 스파이인줄 알고 의심의 마음으로 일년의 시간을 지켜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청년임을 깨달아 의거용과 자결용 폭탄 2개와 300원이라는 거금을 건내며 의거 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히로히토 일왕 암살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 이봉창 의사는.... “제 나이 이제 서른 한 살입니다. 앞으로 서른 한 살을 더 산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다 더 나은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향유코자 이 길을 떠나니 기쁜 얼굴로 사진 찍읍시다.”라며 김구 선생님을 위로하고 일본으로 떠나 일왕 암살 계획을 준비 하셨습니다.

의거활동을 숨기기 위해 더 일본인처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던 중 마침내... 1932년 1월 8일 일왕이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얻은 이봉창 의사는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을 향해 준비한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일왕의 말만 꼬꾸라질 뿐 일왕은 멀쩡히 살아나 일왕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다행히도 이봉창은 체포되지 않았는데 그 때 애꿎은 시민을 붙잡아 가는 모습을 본 이봉창 의사는 내가 범인이 라고, 나를 잡아가라고 소리 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나라를 구하려고 정당하게 독립운동을 한 것이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 이기에 당당히 자수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조선 독립의 뜻을 알리겠다며 목숨을 바친 이봉창 의사 의거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로 인해 세계로 우리의 독립의지가 전해졌고 그 어느 누구도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질 것이라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거 활동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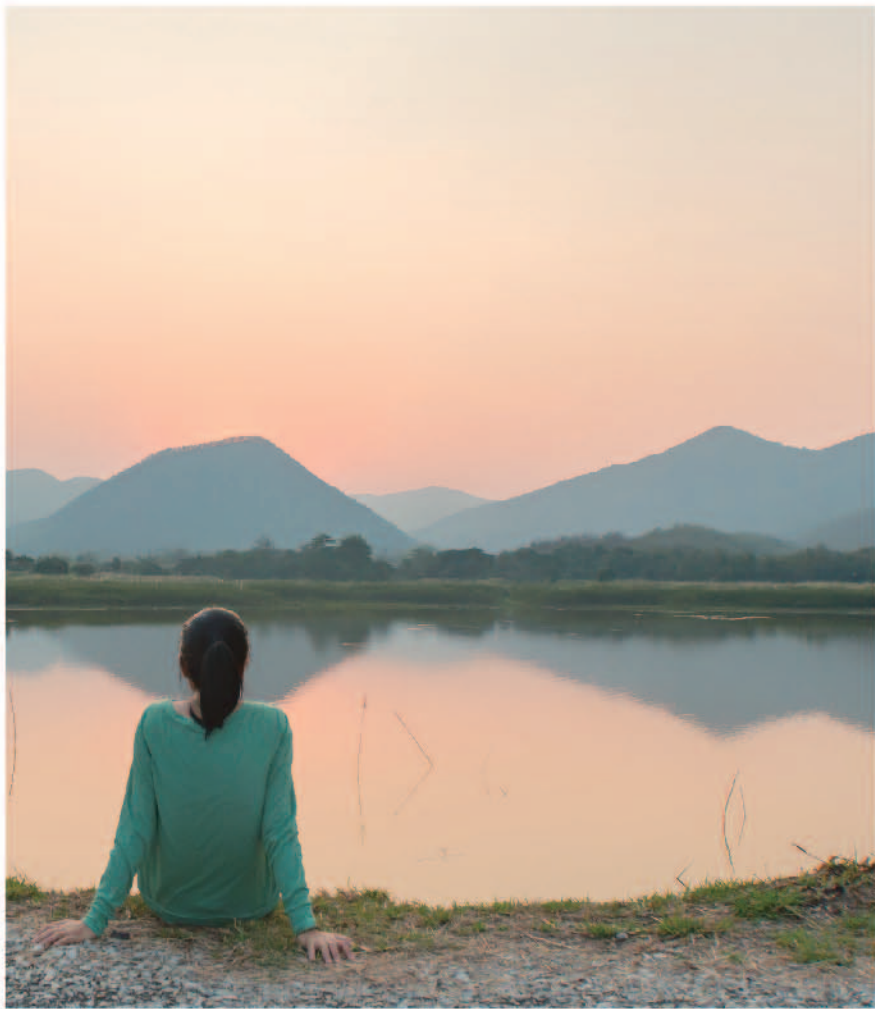
그 이후 이봉창 의사의 영향을 받아 다시 일왕 암살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이십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없었다면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932년 9월 이봉창 의사는 일본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32세 젊은 나이에 조국 독립의 꿈을 생각하며 환한 웃음을 머금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 자리

범상 스님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오고 가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많은 것들이 흘러오고 흘러가고 하네요. 새벽부터 새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지금은 아침보다는 많이 잤아들었네요. 아침에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제법 추워 겹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벗어도 될 정도로 포근해 졌습니다. 바람 소리는 종종 창 밖에서부터 들려오곤 합니다. 창 밖의 초록색 목련꽃 잎은 바람에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고양이도 한 번 왔다가 가고, 저 멀리 사람들 발자국 소리도 스쳐 가네요.

조금 전부터는 지난 달 공사했던 사장님께서 마무리 작업 못한 것이 있다고 오셔서 무슨 기계를 작동시키며 열심히 작업 중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 앞으로 왔다가 가곤 합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지요. 사람들도 오고 가고,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왔다가 갑니다.

사건이나 일들도 왔다가 가고, 성공이나 실패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것들도 오고 갑니다. 삶과 죽음도 왔다가 가고, 우리 몸도 건강했다가 병약해지기도 하고, 생각도 계속해서 오고 가고, 감정도 끊임없이 왔다가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목전에서 바라보며 머물러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마치 셀카봉을 들고 세계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를 가서 어떤 사진을 찍든 언제나 셀카봉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주변의 풍경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셀카봉 안에는 언제나 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라는 매 순간의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늘 한결같이 항상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셀카봉의 중심에 내가 있듯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가고, 내 삶 위로 수많은 것들이 스쳐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 속에서 변함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인연도, 장소도, 생각도, 감정도 다 변하지만 변화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시끄럽게 오고가지만, 온갖 변화무쌍한 요동을 일으키지만 그 모든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있음은 언제나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성공한 삶도 지나가고 실패한 삶도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의 있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현존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 어떤 것도 그저 이렇게 있을 뿐이지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것으로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것들은 다만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관념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는 목전의 당처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저 이대로 일 뿐입니다. 아무런 개념도 해석도 붙일 수 없는 것이지요.

컴퓨터 화면에 멋진 그림이 있을지라도 그 안의 하나 하나의 화소를 보면 그저 하나의 단순한 점인 것처럼 말이지요. 단지 그 점이 이어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때만 잘 그렸거나 못 그린 그림일 수 있을 뿐, 그 점 하나하나는 분별 없는 있음일 뿐입니다.

우리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당처를 직심하여 곧바로 분별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든 목전의 현실이 그저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해석 되지 않는 순수한 존재의 진실이 이렇게 매 순간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말의 품격
이기주

말의 품격 p27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의 품격 p126

나는 인간의 말이 나뉘는 귀소본능이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언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언어의 온도
이기주

언어의 온도 p30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언어의 온도 p276

“여보게, ‘부드러움’에는 ‘강함’에 없는 것이 있다네. 그건 다름 아닌 생명일세. 생명과 가까운 게 부드러움이고 죽음과 가까운 게 딱딱함일세. 살아있는 것들은 죄다 부드러운 법이지.”

작년쫓인가, <언어의 온도>를 읽는 내내 마음에 따뜻함이 번져 있었다는 느낌이 살아나 최근에 작가의 다른 책 <말의 품격>을 찾아 읽게 되었다. <언어의 온도>에서는,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상에서 자칫 허투루 흘려보낼 수 있는 경험, 관계 등을 날카롭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약탕기의 농축액처럼 문장을 진하게 달여 내는 작가의 사유 깊은 통찰력이 깊은 울림으로 전해졌다.

그의 말과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 나로 하여금 따뜻한 생각들을 지니게 하는 매력 같은 힘이 있었다.

또한 <말의 품격>은 평소 너무 쉽게 행해 버리는지도 모르는 나의 '말'에 대한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 작가 특유의 나긋한 목소리로 나무라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마음을 뜨끔거리게 하였다.

명색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팔정도의 정어_{正어} 수행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듯한 따뜻한 매질을 한다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만들었다.

사람과의 관계에 '말'이 지니는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며, 사람의 품격을 기늙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절감하였다.

다른 듯 닮은, 결 고운 언어의 질감으로 작가의 깊은 내면에서 비롯되었을 예리한 통찰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두 권의 책을 이정표로 삼아 자신을 성찰한다면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깊이 있고 온화하게 살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실천이 결국 문제이겠지만.....

<언어의 온도>의 말미에서 작가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며, 각자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쉽지 않을 과제 아닌 과제로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았다.

어느 한 책에 집중하기엔 다른 한 책이 아쉬울 듯 해, 두 권의 책 모두 치우침 없이 참 아름다운 책이라고 느끼고 있는 나로선 책을 읽는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따뜻하고 행복하였노라고 마음 전하며, 다른 이들도 이 아름다운 행렬을 이어가기 서원한다. ♫



이불 공주는 누가 깨울까

-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박현희
사회과 교사



이불 공주가 늘고 있다

공주님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마녀의 심술로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든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아주 길고 긴 잠을 자던 공주님은 지나가던 왕자님의 키스와 함께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자님의 청혼.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더래요.

학교에도 깊고 깊은 잠에 빠지는 공주님, 왕자님들이 많다. 이들은 대놓고 잠을 잔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수업시간 중 잠시 잠깐 몰려오는 졸음을 쫓지 못해 깜빡 잠드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포스가 유독 특별해서 수면을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각오가 필요한 몇몇 시간을 제외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잔다. 이렇게 긴 시간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다. 무릎 담요, 목 베개, 쿠션 등 각종 수면 보조 용품을 교실에 늘 상비해 놓았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잔다. 이런 아이들을 '이불 공주'라 부르고자 한다. '공주'라고 해서 잠을 자는 이들이 죄다 여학생이고 남학생들은 깨어나서 떠들어대는구나. 이런 특별한 해석은 금물이다.

이불 왕자보다는 이불 공주가 뭔가 입에 달라붙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대놓고 잠을 자는 이들 신인류에게는 사실 남녀 구별이 없다. 피로와 절망으로 잠에 빠져드는 이불 공주들, 잠자는 공주를 깨운 것은 왕자의 키스였다.

이불 공주의 잠은 무엇으로 깨울 수 있을까? 이불 공주들은 그 끝없는 잠의 원인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불 공주들이 유형별로 잠에 빠져드는 이유가 다른 만큼 이들의 잠을 깨우는 방법도 달라야 할 것이다.

엄친딸 이불공주

첫 번째는 엄친딸 이불 공주들이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있기는 있다. 엄친딸 이불 공주들은 공부에 쫓겨 잠이 부족한 아이들이다.

이들의 하루는 꼭두새벽부터 시작되어 다음 날이 되어야 마감한다. 새벽 공부, 과외 수업, 숙제, 수행 평가……. 이들이 소화하는 스케줄은 웬만한 연예인들도 “음메, 기죽어!” 소리가 나올 만큼 짹짹하다.

당연히 잠이 부족하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살기 위해서는 자야 한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선택이다. 어떤 시간에 잠을 보충할 것인가.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고 압박도 가장 적게 들어오는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 정규 수업은 이들의 일정 가운데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만큼 교사로부터 받는 압박도 덜하다. 과외나 학원 수업처럼 엄마가 팽팽하게 체크를 하지도 않는다. 수업 시간에 잠 좀 잤다고 부모님께 전화하는 교과 선생님은 학교에 없다. 그러니 잔다.

엄친딸 이불 공주들은 다른 이불 공주들에 비해 월등하게 성적이 좋지만, 이건 다른 이불 공주에 비해 그렇다는 얘기일 뿐, 객관적으로 좋은 성적은 아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예외가 없지는 않겠지만, 누구도 이들과 같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남았다면 그 비결은 ‘사보타주’, 즉 태업에 있다. 이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과로로 쓰러졌을 것이다.

이들이 매 순간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머리가 터졌을 것이다. 부모님이 만들어 준 스케줄대로 움직이되,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살아남았을 뿐이다.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모님들은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스케줄을 만들어 내고,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태만히 보낸다.

다 살자고 하는 것이다. 그걸 정말 ‘지대로’ 하면 누구든 쓰러진다. 나는 엄친딸 이불 공주의 문제가 과외나 학원 같은 사교육 때문이 아니라 시간 관리에 대한 잘못된 환상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

자기 주도 학습이 되었던 과외나 학원이 되었던 똑같다.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서 최대한 낭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것처럼 관리할 수 없다. 잠도 꼭 자야 하고, 친구와의 수다처럼 쓰잘 데 없는 일도 해야 한다. 거울도 보아야 하고 머리도 매만져야 한다. 엄친딸 이불 공주를 깨우기 위해서는 목표를 높게 세우고 잠을 줄이고 자투리 시간을 아껴 노력하면 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엄친딸도, 그 부모도,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도. 🙄



선우예권 피아노 공연을 보고

여순애
자석사교도

선우예권 피아노 공연을 보러 갔다. 평범한 연주회와는 달랐다. 실황 인테도 CD를 듣는 것처럼 흐름이 매끄러웠다. 무대를 걸어 나오는 연주자의 발자국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무대에는 그와 피아노, 연주소리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1부, 2부 각 40분 공연인데도 10분 정도라고 느꼈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연주가 끝나고도 관객들은 쉬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섯 번 정도 앵콜 곡이 연주되었던 것 같다.

사인회를 가지는 그를 보았는데 TV 채널에서 본 얼굴과는 사뭇 달랐다. ‘이방인’이란 프로에서 자신의 생활 모습을 보여 준 바 있는데 피아니스트로서의 그는 참 예술가다웠다. 선우예권은 하노버 국립 음악 대학을 나왔으며 2017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부분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상을 표창했다. 2017년 반 클라이먼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 최초 우승자이자 지금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이다.

연주회마다 화제를 일으키고 매진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그... 깊이 있으며 음악적 정체성을 보여주길 관객은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공연은 선우예권 첫 전국 리사이틀 투어로 주제는 “나의 클라라”로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음악가 중 한명인 클라라 슈만을 중심으로 그녀의 배우자였던 로베르트 슈만 그리고 이들과 밀접하게 삶의 숨결에 엮여 있는 요하네스 브람스 이 세 사람의 우정과 사랑이 이번 공연에 세곡으로 밀도 높게 짜여 있다.’고한다.

유럽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피아니스트 클라라와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 작곡가 슈만은 사랑에 빠진다. 이를 반대한 슈만의 스승이자 클라라의 아버지는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그 결과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슈만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요하네스 브람스는 클라라를 돕게 된다.

클라라와 슈만의 상황과 클라라를 사랑했던 한 음악가의 고독한 삶이 음악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공연에 연주된 세곡은 음악에 조예가 깊지 못한 나에게 어려운 곡이었다. 그러나 피아노의 선율 속에서 인생을 보는듯하여 참 신비로웠다. 피아노 치는 내내 그의 구두가 왜 그리도 빛을 발하는지……. ♪



여름철 녹차를 이용한 음료와 간식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일반적으로 차는 따뜻하게 마셔야하고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복잡한 것을 섞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는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개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엔 꼭 따뜻한 차로만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차는 여름에 마시면 열독을 없애주며 체한 것을 소화시키고 불에 입은 화상을 해독시켜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름은 온갖 과일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계절이고 그러한 과일의 달콤함과 차의 향긋함을 놓치지 않고 한여름의 무더위를 달래줄 수 있는 음료와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아이스타를 만드는 방법으로 차를 뜨거운 물로 우려 냉장 보관하는 방법과 다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냉침법이 있습니다. 냉침법은 물 1리터에 찻잎 10g을 넣고 차가 잘 우려나도록 가볍게 흔들어 냉장고에서 10시간 정도 두었다가 거름망에 걸러서 만드는 것으로 차의 은은함과 향이 배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낸 녹차를 여름철 설사와 배탈 예방에 좋은 매실청과 섞어 만들면 녹차매실냉차, 비타민 C가 풍부한 얇게 썬 레몬조각이나 레몬청을 넣어 섞어주면 녹차 레몬에이드가 만들어 지고 차가운 녹차에 설탕시럽과 브랜디를 넣어 고루 저어주면 녹차 리퀴드가 완성됩니다.

조금 짙하게 우려낸 녹차 또는 녹차를 얼려 만든 얼음조각과 탄산수를 3대 7의 비율로 넣어 섞어주면 녹차에이드까지 여름철 냉장고에 시원한 녹차 한 병 넣어둔다면 여름철 음료 걱정은 없을 듯합니다.

녹차가루를 이용한 음료와 간식



녹차밀크셰이크

재료 |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노른자 1개, 설탕 1큰술, 가루녹차 1작은술
여름철 부족하기 쉬운 무기질과 칼슘 공급원인 우유 1컵, 설탕 1큰술, 얼린 녹차 5~6조각

만들기

- ① 달걀노른자와 우유, 설탕을 넣어 믹서기로 충분히 갈아줍니다.
- ② 1.에 우려낸 녹차를 얼린 얼음조각과 가루녹차를 넣고 다시 갈아주면 완성됩니다.

녹차젤리

재료 | 가루녹차 1큰술, 젤라틴 1큰술, 물 한컵, 설탕 2큰술

만들기

- ① 물에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설탕이 다 녹으면 가루녹차를 넣고
 물치는 것 없이 저어줍니다.
- ② 그 동안 젤라틴을 물에 불려둡니다.
- ③ 1에 2를 넣은 후 체에 내려 모양 틀에 붓고 굳히면 완성됩니다.
 완성된 젤리는 여름철 팔빙수 위에 토핑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팔녹차젤리컵

재료 | 가루녹차 1작은술, 가루젤라틴 5g+ 물 3큰술, 설탕 1큰술, 우유 한컵
 빙수용 팔조금, 각종 과일(산딸기, 오디, 키위, 망고 등)

만들기

- ① 물에 가루젤라틴을 불려둡니다.
- ② 불리는 동안 설탕과 가루녹차를 넣고 거품기로 잘 섞어 둡니다.
- ③ 우유를 전자렌지에서 1분30초 정도 데워 준 후 2에 넣고 불린 젤라틴을
 전자렌지에서 30초정도 가열해서 함께 넣고 섞어 줍니다.
- ④ 컵에 나누어 담은 후 냉장고에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6시간 정도 굳힙니다.
- ⑤ 완성된 젤리컵에 빙수용 팔과 과일을 적당히 올리면 완성됩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젤라틴의 경우 다이어트 식품이면서
 변비예방에도 좋기에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완성된 젤리는 여름철
 팔빙수 위에 토핑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녹차아이스크림

재료 | 녹차가루 4큰술, 달걀 2개, 설탕 3큰술, 생크림(2¼컵=300g)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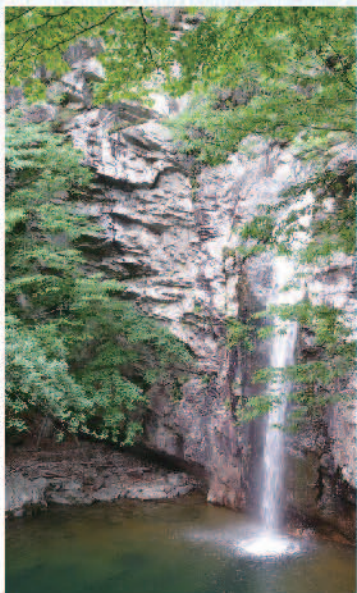
- ① 녹차가루에 따뜻한 물을 넣어 저어둡니다.
- ② 달걀에 설탕을 조금씩 넣어가며 열은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
 휘핑합니다.
- ③ 그리고 생크림은 거품기로 충분히 저어줍니다.
- ④ 휘핑한 생크림에 녹차와 달걀을 부어 부드럽게 섞은 뒤 용기에 담아
 3시간 정도 냉동실에서 굳히면 완성됩니다.(단, 1시간마다 용기
 바닥까지 긁어 고루 섞어 주면 아이스크림이 더 부드러워 짐)

누구든지 위와 같은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와 음식들을 만들다 보면 녹차를 가까이 두지 않던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녹차의 효능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절이 다가올 때마다 준비하며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언제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항상 차를 가까이에 두고서 일상의 안락함을 누리실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선전기문신이며 학자인 서거정의 한시<삼복三伏> 구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일완향다소점빙 一盞香茶小點氷 철래단가세번증 鐵來團茶幾番蒸 한주발의 향기로 온 차에 조그마한 얼음 띄워마셔보니 참으로 무더위를 씻을 수 있네. 🍵

고마운 총지산악회!

김정숙
자석사교도



녹음이 짙어가는 유월의 계곡, 흐르는 물소리와 숲 사이로 전해오는 시원한 바람이 모처럼 계곡을 찾은 우리 일행을 맞이해주니 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인지!!

등산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은 다녀 왔을 법한 신불산 배내골과 파래소 폭포를 총지산악회에서 다녀왔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산악회의 맥이 끊겨져 버림을 안타까워하고 있

을 즈음에, 올 2월부터 산행에서 트레킹으로 약간은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재개되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인 듯 하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하지 않던가!! 회원들의 성화에 의해 불편하신 몸으로도 산악회를 이끌어 주시는 회장님께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배내골은 간월산과 신불산의 영봉들이 솟아 배내협곡을 이루니 그야말로 심산유곡의 경치를 이루고 있다. 예전만 하여도 태산을 넘는 듯 길이 멀고 험하여 인적이라고는 드문 비경에 잠겨 있던 곳

이었다고 한다. 폭포를 이루는 주위 계곡에는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의 더위를 식혀주며, 특히 삼림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등산객들의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흰 물줄기가 못으로 흘러내려 배내천을 이루니 가히 장관을 이룬다.

오늘의 날씨 또한 트레킹하기에 딱 좋은 쾌청한 날인지라 폭포 오르는데 내내 힐링의 시간이 되어 주었다. 자연과 더불어 걷는 이 시간들은 속세에서 지친 삶의 고단함을 훌훌 털어내는 순간이기도 하다. 또한 제가끔 마련한 도시락을 나누고 베푸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다.

자연의 품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풍광에 젖어들면 그 누구든 순화되는 듯 하다. 유월의 행사도 즐겁고 보람된 날이 되어주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총지도반들이 함께 하지 못함이다.

하반기 불공기간이어서 일까... 이번 트레킹엔 더욱 참여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었음에도 기꺼이 차량을 제공해주신 정각사에게 감사드린다.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둘레길 산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자연과 더불어 삶에 활력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총지산악회가 더욱 번창되기를 희망하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염원해본다. 🙏



음모

범일 정사
수인사 주교



여우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고 있었다.
누군가가 여우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이 낙타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이런바보, 낙타와 넌 운명 자체부터가 달라.
요만큼도 비슷한 구석이 없어.”

여우가 고개를 흔들며 외쳤다.
“시끄러워. 만일 어떤 음모자가 있어서 날 낙타라고
우겨댄다면 그땐 누가 날 구해 주겠어.”



증거

어떤 사람이 하인에게 술 단지를 들려 주며 아무개 집에 가서
술을 좀 얻어오라고 하였다. 하인이 아무개 집으로 가다가
그만 실수를 하여 술 단지를 바위에 부딪쳐 깨고 말았다.
아무개 집에 도착한 하인의 손에는 술 단지의 손잡이만 덜렁
들려있었다. 하인이 말했다.
“우리 주인님이 당신에게 술 단지를 보냈습니다만 오는 길에
무시무시한 바위가 그걸 빼앗아갔어요.”
하인의 말을 들은 아무개는 재미있어하며 그를 시험해 볼 생
각으로 물었다. “단지를 빼앗겼다면 어째서 내게 손잡이를
주는 거지?” 하인이 말했다. “난 다른 사람들 처럼 바보가 아
닙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증거로 손잡이
라도 가져온 겁니다.” 🕯



불교는 세간보다는 출세간에 가치를 두고, 승가 또한 집을 버린 출가승니(僧尼)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불교의 이러한 출세간적인 경향은 세속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기 어렵다. 자칫하면 가정이나 국가를 멀리하는 천견(淺見)으로 흐를 위험까지 있는 것이다.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수입 혼통된 불교가 그런 전지에서 ‘은恩’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그것을 크게 강조하게 됨은 당연한 순서라 할 것이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불교의 보편적 윤리관이 충효와 같은 특수한 인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그 은恩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인륜의 근본은 부모와 자식 사이이므로, 불교의 은恩도 부모은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여러 가지 은이 설해지는데, 중기 대승 불교의 십지관정(心地觀經)에는 1)부모 2)중생 3)국왕 4)삼보의 사은(四恩)이 설해지고, 중국 도성(道城)의 석씨요람(釋氏要覽)에는 1)부모 2)사장 3)국왕 4)시주의 사은(四恩)이 열거되고 있다.

이중 부모은을 살펴보면, 효를 도덕의 근본으로 하는 유교에서 승려의 출가 체발(剃髮)은 막중한 불효로 단정될 수밖에 없다. 불교가 그러한 중국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부모은을 앞세우고, 진정한 효는 단순한 봉양에 그치지 않고, 부모를 바른 법(三寶)에 귀의시켜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한 안온처(安穩處)에 모시는 데에 있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은에 관한 경전들이 중국에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지만, 더욱 그런 뜻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전의 찬술(撰述)에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중국찬술로 생각되는 대보부모은중경(大報父母恩重經)에는 어머니가 겪는 회태(懷胎) 생육(生育)의 열 가지 심은(深恩)을 열거하고, 배은(背恩)의 불효와 보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우란분경(五蘊分經)에는 7월 15일 해제일에 백미정찬(百味淨餐)을 담은 분盞으로 지방승께 공양하면 현재 부모는 물론 과거 칠세(七世) 부모까지 이고득락(離苦得樂)한다고 설해져 있다.

불교적인 효의 실천을 의례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은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한국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삼국사기의 ‘효녀지은(孝女知恩)’, 삼국유사 제 9 효선편(孝善篇)에 실린 설화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에 부모은의 윤리가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란분재 또한 고려 예종 1년(1101)의 설행(設行)을 효시로 그 뒤 빈번히 개최되면서, 현재는 민속의 차원으로까지 토착화해 있는 것이다. 민간에서 널리 행해지는 7월 보름의 ‘백중’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

엄원

念願

念 생각 - 엄

願 원할 - 원

①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바랄

② 그런 소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민족의 엄원은 통일이며, 부모들의 엄원은 자식들의 행복이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누구나 나이가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 대로의 엄원이 있게 마련이다.

엄^念이란 생각이라는 뜻이나 강하게 생각하는 것,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엄(念)>이다. 따라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을 엄원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원(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바른 불자라면 원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불자라면 누구나 사홍서원(四弘誓願)을 위시해서 크고 작은 개별적인 원을 세운다. 이 원을 세우는 것, 내는 것을 발원(發願)이라고 한다.

이렇게 각자 나름의 원^願, 예컨대 약사여래의 12대원이라든가, 아미타여래의 48대원, 보현보살의 10원등을 별원(別願)이라고 한다.

굳이 불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목표를 발원하고, 그 발원에 따라 착실히 살아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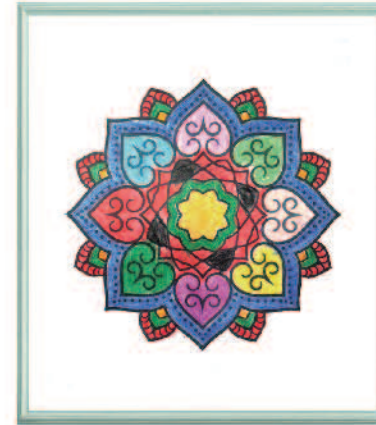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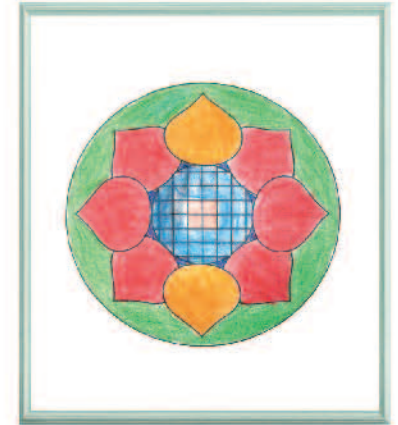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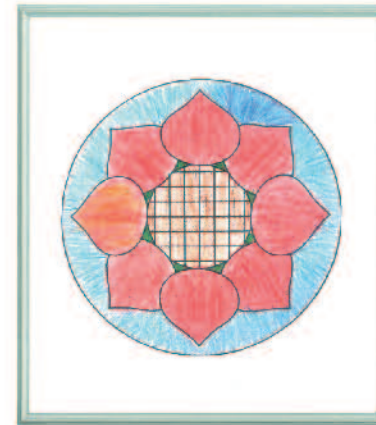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 자석사 광연아



▲ 자석사 양정금



▲ 자석사 최병철



▲ 자석사 여순애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홍지중 정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발행일 총기 48(2019)년 7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 ~ 3
팩스 02-552-1082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의 마지막주를 보내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우리는 새벽마다

합성을 외쳤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의

기적이 우리를 새벽마다 소리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의 염원이 통해서 일까...

우리가 이룬 성과는 준우승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6월을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쯤은 주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지냈는지를 생각해 본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하고 지냈는지를 생각해 본다.

아... 내가 너무 삭막하게

생활을 한 것 같다.

오늘부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7월호



모든 갈래 차별과 수없는 망상
업과 마음과 과보도 하나 아니며
근기와 성품들도 제각기 달라
큰 마음 한번 내면 밝게 본다네

- 법혜 보살의 게송 -